

성경연구 제9-2호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BIBLICAL STUDIES

고린도전서 본문 비평_주기철 교수

고린도전서의 배경_김형태 박사

고린도전서 해석과 강해_황원하 박사

고린도전서 난제구절과 이슈_문장환 박사

총회성경연구소

KOSIN BIBLE INSTITUTE

2023년 5월

통권 제 9-2호 고린도전서

발행인 김하연

편집인 송영목

발행처 총회성경연구소

인쇄 2023년 5월 30일

발행 2023년 5월 30일

목 차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본문비평

주기철 교수(Ph.D., 신약학, 고신대학교) • 4

고린도전서의 배경

김형태 박사(주님의 보배교회 담임, 영국 더럼대학교 Ph.D.) • 18

고린도전서 해석과 강해

황원하 박사(Ph.D., 신약학, 대구 성산교회 담임)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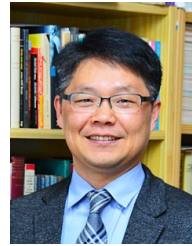
고린도전서 난제구절과 이슈

문장환 목사(Ph.D., 진주 삼일교회 담임) • 62



고린도전서 본문비평

주기철 교수(Ph.D., 신약학, 고신대학교)



들어가면서

본 글은 GNT 5판을 근거로 해서 비교적 사본의 통일성이 크지 않은 본문비평 등급인 {C}와 {D}에 해당하는 15 구절(1:8, 14; 2:4, 15; 4:17; 5:4, 6:11; 7:34; 10:2, 20; 11:15; 13:3, 4; 15:10, 31)을 중심으로 원본 추적 및 사본 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비평의 편의성을 위해서 두 개의 큰 구분인 비평사본과 다수사본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려 한다. 그리고 한글 번역본인 개역개정 및 공동번역,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성경 몇 가지(ESV; KJV; NASB; NIV; NLT)를 비교한 후 적절한 번역이 무엇인지 제안하려 한다.

1. 본문비평과 번역 제안

1.1. 고린도전서 1:8 {C}

Ⲑ A C D Byz: Χριστοῦ

P⁴⁶ B vg^{ms}: 생략

『개역개정』: 그리스도의

『공동번역』: 그리스도의

이 경우 Ⲑ와 A, 그리고 C와 D는 Χριστοῦ를 포함하지만 이른 사본인 P⁴⁶과 B는 이를 생략한다. 어떤 이문이 원본에 가까운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첫 번째 이문이 Ⲑ와 A 외에 신약사본 약 5,500개의 90%를 차지하는 그리스어 소문자로 기록된 다수사본(Byz)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¹

1.2. 고린도전서 1:14 {C}

Ⲑ² C D F Byz: τοῦ θεοῦ

A 33 81 436: τοῦ θεοῦ μου

Ⲑ* B 1739: 생략

『개역개정』: 생략

『공동번역』: 하느님께

1) 개역개정 및 공동번역 외에 대부분의 영어성경(ESV; KJV; NASB; NIV; NLT)도 ‘그리스도’(Christ)를 포함하여 번역한다.

사본을 비교해 볼 때, **ℵ***와 B, 그리고 1739는 ‘하나님께’(τῷ θεῷ)라는 표현을 생략했지만 **ℵ**²와 C, D, 그리고 소문자 다수사본(Byz)이 포함한 것을 보면, 후대의 교정자들이 이 표현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εὐχαριστῶ가 사용된 다른 바울 서신에서 ‘[나의] 하나님께’(τῷ θεῷ [μου])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 것에 근거한다(고전 1:4; 14:18; 빌 1:3; 몬 1:4).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초기 필사본 과정 중에 생략되었을 수도 있다. 사본 상 세 번째 이문이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²

1.3. 고린도전서 2:4 {C}

B D 0150: *πειθοῖς σοφίας λόγοις* [**ℵ*** *λόγος*]

P⁴⁶ F G 33: *πειθοῖς σοφίας*

ℵ² A C Ψ Byz: *πειθοῖς ἀνθρωπίνης σοφίας λόγοις*

『개역개정』: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공동번역』: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

몇몇 학자들은 사전학적으로나 *difficilior lectio probabilior*, 그리고 위에서 제시된 것 외에 다양한 이문이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P⁴⁶을 선호하며 여기서 다양하게 수정되었다고 본다.³ 그러나 **ℵ*** B D 0150 등과 함께 많은 사본이 *πειθοῖς σοφίας λόγοις*를 지지하기에 첫 번째 이문이 더 원본에 가까운 듯하다. 번역은 여격인 *πειθοῖς λόγοις*와 중간에 있는 속

2) 참고. A.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0), 139-40. 영어 번역본들은 NIV와 NJB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나님께’(God)를 포함한다 (ESV; KJV; NASB; NLT).

3) 참고.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7), 88.

격 σοφίας를 고려한다면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다.

1.4. 고린도전서 2:15 {C}

P⁴⁶ A C D*: τὰ πάντα

ⲛ¹ B D² Ψ Byz: μὲν πάντα

P 6 33 81: μὲν τὰ πάντα

『개역개정』: 모든 것을

『공동번역』: 무엇이나

ⲛ¹ B D² 가 정관사 τὰ 대신에 μὲν을 포함하고 보다 이른 사본인 P⁴⁶와 A 그리고 C와 D가 정관사를 포함한다. ⲛ의 후대버전인 ⲛ¹과 B, D²에서 μὲν을 포함시킨 것은 아마도 이후에 따라 나오는 δέ 때문인 듯하다. 사본 상 첫 번째 이문을 가장 지지하여, 개역개정의 것처럼 ‘모든 것을’로 번역하기 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⁴

1.5. 고린도전서 4:17 {C}

P⁴⁶ ⲛ C D¹: Χριστῷ Ἰησοῦ

A B D² Ψ Byz: Χριστῷ

D* F G: κυρίῳ Ἰησοῦ

『개역개정』: 그리스도 예수

4)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71. 씨셀튼은 정관사를 추가하는 것은 πάντα가 남성 단수 대격이 아니라 중성 복수인 것을 분명히 한다고 본다.

『공동번역』: 그리스도

D*와 F, 그리고 G와 같은 사본은 κυρίῳ Ἰησοῦ로 읽지만 이는 필사자들에 의해서 변형된 듯하다. A와 B 외에 여러 사본은 Χριστῷ라고 읽는다. 때때로 보다 짧은 이문을 선호하기도 하지만,⁵ 보다 오래된 사본인 P⁴⁶과 κ 등이 Ἰησοῦ를 포함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문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⁶ 따라서 개역개정처럼 ‘그리스도 예수’라고 번역할 수 있다.

1.6. 고린도전서 5:4 {C}

B D* 1175: ἡμῶν Ἰησοῦ

A Ψ 1852: Ἰησοῦ

P⁴⁶ D² F G Byz: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κ: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개역개정』: 우리 ~ 예수

『공동번역』: 우리 ~ 예수

본 구절의 경우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본에서 Ἰησοῦ는 포함한다. 그리고 P⁴⁶와 κ가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포함한다. 그러나 Χριστοῦ는 A와 B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종말적 심판의 엄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사자에 의해 추가된 것이라

5) 참고.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83.

6)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373.

고 본다.⁷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본 상 첫 번째 이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문 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⁸

1.7. 고린도전서 6:11 {C}

P^{11vid}, 46 & D*: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A D² Ψ 0150 Byz: Ἰησοῦ

B C^{vid} P: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개역개정』: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번역』: 예수 그리스도의

본 구절의 경우 &는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로 읽지만 A와 D²는 Ἰησοῦ로 읽고, B는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로 읽는다. 가장 짧은 읽기를 따른다면 두 번째 이문이 가장 적합하다. 어떤 이는 ἡμῶν은 이어지는 문장과의 동화를 위해서 추가되었고, Χριστοῦ는 예전적인 이유(liturgical reasons)로 추가되었다고 본다.⁹ 따라서 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가 되고 이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

1.8. 고린도전서 7:34 {D}

7)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98.

8) 영어 번역본을 보면 ESV와 NLT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KJV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NASB와 NIV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our Lord Jesus)로 각각 번역한다.

9)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39.

P¹⁵ B P 104: καὶ μεμέρισται. καὶ ἡ γυνὴ ἡ ἄγαμος καὶ ἡ παρθένος

P⁴⁶ ⲥ A 33: καὶ μεμέρισται. καὶ ἡ γυνὴ ἡ ἄγαμος καὶ ἡ παρθένος
ἡ ἄγαμος

D² F G Ψ Byz: μεμέρισται καὶ ἡ γυνὴ καὶ ἡ παρθένος ἡ ἄγαμος

『개역개정』: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공동번역』: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본 구절은 고린도전서에서 유일하게 D등급으로서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바울서신에서 본문비평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첫 번째 이문 그룹(P¹⁵; B; P; 104)과 두 번째 그룹(P⁴⁶; ⲥ; A; 33)의 차이는 마지막에 ἡ ἄγαμος가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문장 중간의 ἡ γυνή에 ἡ ἄγαμος가 생략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의미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P⁴⁶과 ⲥ, 그리고 A가 포함하는 문장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번역은 “그리고 마음[관심]이¹⁰ 나뉘어졌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라고 할 수 있다.

1.9. 고린도전서 10:2 {C}

ⲥ A C D F G Ψ: ἐβαπτίσθησαν

P^{46c} B 0150 Byz: ἐβαπτίσαντο

『개역개정』: 세례를 받고

10) ‘나누어지다’(μεμέρισται)라는 동사에는 무엇인 그렇게 되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개역개정은 이전의 문맥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번역성경은 ‘관심’(interest)이 나누어진 것으로 번역한다(ESV; NASB; NIV; NLT).

『공동번역』: 세례를 받아

여기서의 이슈는 βαπτίζω라는 동사가 3인칭 단순과거 수동태 직설법인지 아니면 3인칭 단순과거 중간태 직설법인지에 대한 것이다. **κ**와 **A**, 그리고 **C**와 **D**같은 사본이 과거 수동태 직설법(ἐβαπτίσθησαν)의 형태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필사자들이 수동태에서 중간태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태에서 수동태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 따라서 원본에 가까운 것은 두 번째 것으로 **P^{46c}**와 **B**, 그리고 **0150** 등에 기록된 ἐβαπτίσαντο일 수 있다.¹¹ 번역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인 수동태가 재귀적인 의미(reflexive meaning)를 가진다면 그 번역은 비슷하다. 그러나 시제를 고려한다면, “세례를 받았고”라고 번역 할 수 있다.

1.10. 고린도전서 10:20 {C}

B cop^{sa}: ἃ θύουσιν, δαιμονίοις καὶ οὐ θεῷ θύουσιν

D F G: ἃ θύουσιν, δαιμονίοις θύουσιν καὶ οὐ θεῷ

P^{46vid} κ A C P Ψ: ἃ θύουσιν, τὰ ἔθνη, δαιμονίοις καὶ οὐ θεῷ
θύουσιν

6 424 436 Byz: ἃ θύει τὰ ἔθνη, δαιμονίοις θύει καὶ οὐ θεῷ

『개역개정』: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공동번역』: 나는 이교도들이 바치는 제물이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11)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441.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문장의 주체가 τὰ ἔθνη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인지에 대한 것이다. B와 cop^{sa}등을 포함한 첫 번째 이문은 ἃ θύουσιν, δαιμονίοις καὶ οὐ θεῷ θύουσιν로 읽고 D와 F, 그리고 G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이문은 ἃ θύουσιν, δαιμονίοις θύουσιν καὶ οὐ θεῷ로서 문장의 어순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같다. P^{46vid}와 **κ**, 그리고 A와 C 등, 사본 상 가장 큰 지지를 받는 세 번째 이문은 τὰ ἔθνη를 포함한다. 비잔틴 계열의 지지를 받는 네 번째 이문은 대문자 사본의 지지가 약하다. 따라서 세 번째 이문을 택하여 번역하면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와 같이 된다.

1.11. 고린도전서 11:15 {C}

κ A B 33 81: δέδοται αὐτῇ

C H P 0150: αὐτῇ δέδοται

P⁴⁶ D F G Ψ Byz: δέδοται

『개역개정』: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공동번역』: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그 머리를 가리워 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인칭 여성대명사 여격인 αὐτῇ가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 가장 이른 사본인 P⁴⁶을 비롯해서 대문자 사본인 D와 F, 그리고 G 등은 이 대명사 없이 동사 δέδοται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κ**와 A, 그리고 B 등의 사본은 이 대명사가 동사 뒤에 따라 나와서 δέδοται αὐτῇ가 된

다. 어떤 이들은 αὐτῇ가 없는 것이 더 의미가 잘 통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문을 택하기도 하지만,¹² 사본 상 가장 큰 지지를 받는 것은 첫 번째 이문이다.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 모두 αὐτῇ를 생략한 것을 따른다. 따라서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그[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번역을 제안할 수 있다.

1.12. 고린도전서 13:3 {C}

P⁴⁶ & A B 0150: καυχῶμαι

C D F G 81: καυθήσομαι

Ψ 6 256 365 Byz: καυθήσομαι

『개역개정』: 불사르게

『공동번역』: 불 속에 뛰어 든다 하더라도

이 경우 세 개의 이문이 존재한다. 첫 번째 것은 P⁴⁶과 &, 그리고 A와 B 등 가장 강력한 사본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서 단순과거 가정법 중간태인 καυχῶμαι가 쓰여서 ‘내가 자랑할 것이다’(that I may glory)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이문은 C와 D, 그리고 F와 같은 사본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미래 직설법 수동태인 καυθήσομαι가 쓰여서 ‘내가 불살라질 것이다’(that I should be burned)라는 의미이다. 세 번째 이문은 Ψ와 6 등의 사본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단순과거 가정법 수동태인 καυθήσομαι가 쓰여서 ‘내가 불사를 것이다’(that I may burn)라는 의미이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것이 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이문을 선호하기

12)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843-44.

도 하지만,¹³ 가장 강력한 사본의 지지를 받는 첫 번째 이문을 택하는 것이 합당한 듯하다. 따라서 번역은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라고 번역할 수 있다.

1.13. 고린도전서 13:4 {C}

ⲛ A C D Ψ 048 Byz: ἡ ἀγάπη

B 33 104: 생략

『개역개정』: 사랑은

『공동번역』: 사랑은¹⁴

13:4은 세 번째 ἡ ἀγάπη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생략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가진다. ⲛ와 A, 그리고 C와 D 같은 사본은 이를 포함하지만, B와 33, 그리고 104와 같은 사본은 이를 생략한다. 이는 첫 번째 이문이 조금 더 강한 지지를 받는 듯하고, 따라서 ἡ ἀγάπη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이 표현이 13:4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사랑은’이라는 주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맞추는 듯하다. 번역은 개역개정의 것처럼 하면 된다.

1.14. 고린도전서 15:10 {C}

ⲛ² A D¹ Ψ 0150 Byz: ἡ σὺν ἐμοί

13)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042-43.

14) 공동번역은 오히려 ‘사랑’(ἡ ἀγάπη)이라는 표현이 5회 나타난다.

P⁴⁶ syr^{hmg} : ἡ εἰς ἐμέ

Ⲙ* B D* 0243: σὺν ἐμοί

『개역개정』: 나와 함께하신

『공동번역』: 나에게 주신

먼저 Ⲙ*와 B, 그리고 D*를 포함한 여러 사본은 정관사 ἡ를 포함하지 않은 채 σὺν ἐμοί로만 읽는다. 그런데 정관사를 포함한 두 번째 이문인 ἡ σὺν ἐμοί를 포함하는 사본은 Ⲙ²와 A, 그리고 D¹ 등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어찌면 원래는 정관사 ἡ가 없었지만 이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가장 이른 사본인 P⁴⁶과 여러 사본이 지지하는 세 번째 이문이 정관사를 포함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본들이 ἡ를 빠뜨렸을 수도 있다. 또한 세 번째 이문은 정관사를 포함하지만 그 형태가 조금 다른데 (ἡ εἰς ἐμέ)이는 고전 15:10a에 있는 동일한 표현(ἡ εἰς ἐμέ)과 동화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¹⁵ 이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본 상 가장 큰 지지를 받는 것은 세 번째 이문인 듯하다. 따라서 번역은 개역개정처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다”라고 할 수 있다.¹⁶

1.15. 고린도전서 15:31 {C}

Ⲙ A B K 0150: ἀδελφοί

15)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211.

16) 영어번역본들은 정관사가 있는 사본의 번역을 선호하는 듯하다. ESV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but the grace of God that is with me); KJV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but the grace of God which was with me) 그리고 NIV도 이와 유사하게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라고 번역한다.

P⁴⁶ D F G Ψ Byz: 생략

『개역개정』: 형제들아

『공동번역』: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31의 사본 상의 문제는 호격인 ‘형제들아’(ἀδελφοί)라는 표현이 있는지 아니면 생략되었는지의 문제이다. 먼저 **ℵ**와 **A**, 그리고 **B**와 같은 사본은 ἀδελφοί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른 사본인 **P⁴⁶**를 포함하여 **D**와 **F**, 그리고 **G** 등의 사본은 이 호격을 생략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표현을 빼먹는 것 보다는 추가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여 두 번째 이문을 선호한다.¹⁷ 그러나 보다 많은 중요한 사본들이 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본 상으로는 첫 번째 이문이 더 큰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¹⁸

2. 사본 경향 분석

파피루스, **ℵ***, **B**가 일치하는 경우: 13:3(1회)

파피루스, **ℵ***, **B**가 불일치하는 경우: 5:4(1회)

ℵ*, **B**가 일치하는 경우: 1:14; 2:4; 11:15; 13:3; 15:10, 31(6회)

ℵ*, **B**가 불일치하는 경우: 1:8; 4:17; 5:4; 6:11; 7:34; 10:2, 20; 13:4(8회)

파피루스와 **ℵ***가 일치하는 경우: 4:17; 7:34; 10:20; 13:3(4회)

파피루스와 **ℵ***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4; 5:4; 10:2; 15:10, 31(5회)

파피루스와 **B**가 일치하는 경우: 1:8; 10:2; 13:3(3회)

17) 참고.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761;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249.

18) 한글성경뿐 아니라 영어번역본들도 ἀδελφοί를 포함시키기를 선호한다(ESV; NASB; NIV; NLT). 그러나 KJV는 ἀδελφοί를 생략한다.

파피루스와 B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4, 15; 4:17; 5:4; 7:34; 10:20;

11:15; 15:10, 31(9회)

⌚와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 1:8; 10:2, 20(3회)

B와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 없음

⌚, B,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 없음

나오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 B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파피루스와 ⌚는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비슷하지만, 파피루스와 B도 일치하는 경우보다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로 사본 상의 비교만 가지고 원본을 추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내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

김형태 박사(주님의 보배교회, 영국 더럼대학교 PhD)



1. 들어가며: 고린도전서의 중요성

고린도전서에 대한 바울 학계의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아 온 책은 아무래도 로마서일 것이다. 로마서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했고 원죄 교리를 확립했으며, 루터가 “오직 믿음”의 기치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며, 교회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이다. 그런데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소개와 일반적인 신학 진술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반면,¹ 바울이 선교활동을 통해서 직접 개척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는 공동체가 처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1세기 그리스-로마 문화권에 있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교회 공동체의 생생한 모습과 현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이며, 최근 신약학계에서 신약성경을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읽는 방식(Social-Scientific approach)이 중요해짐에 따라 고린도전서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진 것이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이 글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로마 식민 도시였던 고대 도시 고린도(Roman Corinth)의 지리, 경제, 정치, 문화, 종교적 특징을 다룬 후에, 이 편지를 쓴 당시의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한 고대 교회의 초상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간단히 반추해 보는 것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2. 고대 도시 고린도

(1) 지리, 경제적 특징

고대 도시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고린도 지협(Isthmus of Corinth) 상에 위치해 있었고, 동쪽으로는 겐그레아(Cenchreae) 항과 북서쪽으로는 레게움(Lechaenum) 항 사이에 있었으므로,

1) 물론 프란시스 왓슨(Francis Watson)이나 스캇 맥나이트(Scot McKnight) 같은 최근의 학자들은 로마서 14-15장에 나오는 공동체 현안에 대한 내용에 주목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로마서 전체를 해석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Francis Watson, *Paul, Judaism, and the Gentiles: beyond the new perspective* (Grand Rapids: Eerdmans, 2007); Scot McKnight, *Reading Romans Backwards: A Gospel of Peace in the Midst of Empire*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9)을 보라.

에게 해와 이오니아 해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동서 무역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 고린도 지협을 통과하지 않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남쪽 바다를 빙돌아서 항해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거리도 멀었음으로, 당시 사람들은 주로 레게움 항과 겐그레아 항 사이의 짧은 지협을 육로로 통과했는데, 바로 그 경로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배들의 경우에는 한쪽 항구에서 하역 작업 없이 롤러 위에 올려진 채로 그대로 끌고 가서 지협을 지나 다른 쪽 항구에서 다시 바다에 띄웠다. 큰 배들의 경우에는 한쪽 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그 짐들을 인부들이 다른 쪽 항구에 있는 배에 다시 옮겨 싣는 방식으로 이오니아 해와 에게 해 사이의, 즉 소아시아와 로마 사이의 무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고린도가 얻게 되는 경제적인 수익은 막대했다.²

부에 대한 고린도의 명성은 비단 무역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1세기 로마의 정치가이자 박물학자였던 플리니우스가 고린도산 청동은 제국 전체에서 “은보다, 거의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기록을 남겼고,³ 이런 연유로 고린도는 청동 생산과 청동으로 만드는 다양한 작은 장식품들과 생활 용품으로 유명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고린도는 테라코타 산업, 골각기(bone implements) 제조, 안료 생산, 유리 제조 등이 활

2)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인 스트라본(Strabo)은 주전 7세기 경에 고린도가 이런 지리적 이점을 통해서 얻게 된 “부”에 대해서 다음의 기록을 남겼다. “고린도는 그곳의 상업 덕분에 부유하다고 불린다. 고린도는 지협에 위치하고 있어서 두 항구를 통제하는데, 하나는 아시아 쪽에 있고, 하나는 이탈리아 쪽에 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양쪽 사이의 상품 교환이 용이하다... 아시아와 이탈리아에서 온 상인들은 말레아 콧(Cape Malea)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로부터 수출되거나 육로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 관리들에게 통행료를 지불했고, 이것은 이 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다.” Strabo, *Geography* 8.6.20.

3) Plinius, *Natural History* 34.1.1.

성화되어 있었다.⁴

또한, 고린도는 올림피아 제전 다음가는 고대 운동 축제였던 이시미안 제전(Isthmian Games)을 2년마다 개최함으로써, 많은 군중들을 끌어 모았으며, 이로 인해 고린도 정부는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일찍이 호머가 일리아드에서도 “부유한” 고린도에 대해 언급했을 정도로⁵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부자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2) 정치-문화적 특징

고린도가 속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합인 아카이아 동맹(Achaean League)은 주전 2세기 초부터 점차 그리스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로마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스파르타와 다른 회원국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전 147년 고린도에서 열린 회담에서, 로마 원로원의 대표단은 고린도와 스파르타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연맹 탈퇴를 제안했고, 아카이아인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같은 해 테게아(Tegea)에서 소집된 2차 회담에는 로마와 스파르타만 참석했고, 아카이아 동맹에 속한 다른 나라들은 주전 146년 초에 스파르타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로마와 아카이아 동맹 사이의 전쟁을 촉발시켰고, 스카르피아(Scarphea), 포키스(Phocis) 등지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던 로마는, 마침내 고린도 지협에서 집정관 뭉미우스(Mummius)가 지휘하는 3만 명에 이르는 로마 군대가 아카이아 동맹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전쟁을 끝낸다. 이 때 뭉미우스 군대는 고린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노예로 팔고, 도시의 보물들을 강탈해서 로마로 보낸 후, 로마

4) Victor Paul Furnish, *II Corinthia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9.

5) Homer, *Iliad* 2. 570. Cf. Dio Chrysostom, *Orations* 37, 36.

에 반기를 든 본보기로 고린도를 완전히 파괴시켰다.⁶

폐허 상태로 약 100년간 방치되던 고린도의 재건은, 주전 44년에 고린도의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가치를 알아본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이 곳에 로마 식민지 건설을 명령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로마 퇴역군인들의 이주를 통해 설립된 대부분의 로마 식민지와는 달리, 고린도의 이주민들의 다수는 해방 노예(libertini)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는 이들의 출신이 본래 로마인들이 아니라 시리아인, 이집트인, 유대인 등 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로마 식민지 고린도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었는데, 고린도는 다른 로마 식민지와는 달리, 해방 노예들도 시의 최고 행정관(duoviri)으로 선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⁷ 로마 식민지로 새롭게 재건된 고린도는 신분의 상승을 꿈꾸던 이주민들의 노력 덕분인지, 빠르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갔으며, 주전 27년에 원로원의 속주로 편성된 아카이아 지방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예전에 그리스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이던 고린도는 이제 모 도시(mother city)가 된 로마의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영향 아래 있게 된다.

고린도의 가파른 재건과 성장은 특히 티베리우스 황제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재위 기간(티베리우스: 주후 14-37; 클라우디우스: 주후 41-54)에 두드러지는데, 이 때 많은 공적인 건물들이 새로 세워지거나, 복구되었다. 와이즈만(Wiseman)에 의하면, 로마에 의해 멸망 당하기 전 도시 국가 고린도의 인구는 130,000명에 달했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 고린도의 인구는 급증하여 이를 훨씬 상회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

6) 고대 고린도와 로마 사이의 역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James R. Wiseman, "Corinth and Rome I: 228 B.C.-A.D. 267," *ANRW* II, 7/1 (1979): 438-548.

7) Appian, *Roman History* 8.20.136; Strabo, *Geography* 8.6.23.

8) James R. Wiseman, *The Land of the Ancient Corinthians* (Göteborg: Åströms, 1978) 11-

며 신대륙으로 몰려들었던 미국의 역사를 떠올리면 당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로마의 식민도시가 된 고린도는 공적인 언어로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헬라어로 작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헬라어는 여전히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여러 비문들을 통해서 1세기 전반기에 이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시민으로 알려진 사람의 이름에서도 확인된다. 그 이름은 Gnaus Babbius Philenus인데 아마도 그의 원래 헬라어 이름은 “Philenus”였을 것이고, 해방 노예가 되면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Gnaus Babbius”의 이름을 따온 듯하다. 그는 로마 식민도시 고린도에서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도시의 최고 행정관(duoviri)이자, 최고 종교 관리(pontifex)의 자리에 올랐다.⁹

로마의 식민도시가 되기 전부터 부유했고, 주변 항구들을 통한 유동 인구가 많았던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로도 유명했다.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책에서 창녀를 암시하는 의미로 “고린도 소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¹⁰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간음하다”라는 의미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korinthiazesthai)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¹¹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바울 당시 고린도인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콘첼만(Hans Conzelmann)은 고린도 시에 우뚝 솟은 바위산인 아크로고린도(Acro-

12.

9) Furnish, *II Corinthians*, 31-32.

10) Plato, *The Republic*, Tr. by Tom Griff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96. 플라톤은 운동선수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안되듯이, 신체적으로 좋은 몸 상태를 만들고 싶은 남자는 “고린도 소녀”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문맥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1) Aristophanes, *Attributed Fragments* 354.

corinth)에 세워져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 천 명에 달하는 성전 창녀들이 있었다는 고대 지리학자 스트라본의 주장은¹²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는 상상 속의 이야기였을 뿐이라고 일축한다.¹³ 설령 스트라본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린도가 로마에 의해 파괴되기 전의 이야기일 뿐, 로마의 식민도시가 된 바울 당대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헤이스(Richard B. Hays)나 바레트(C.K. Barrett)는 바울 당시 고린도의 성적인 풍습은 당시의 다른 항구 도시들이나 상업 중심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⁴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후에도 고린도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2세기 로마의 소설가인 아풀레이우스(Lucius Apuleius)는 그의 대표작인 『황금 당나귀』(Metamorphoses)¹⁵에서 당나귀와 수간을 벌이는 외설적인 내용이 발생하는 장소를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바꾸었는데, 이는 2세기에도 고린도는 성적으로 방탕한 도시의 이미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음을 방증한다.¹⁶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거리의 극장에서는 각종 공연 및 검투사들의 혈투 등이 끊이지 않는 볼거리가 많은 도시였지만, 2세기 그리스 철학자인 알키프론(Alciphron)은 고린도의 호화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인들이 품

12) Strabo, *Geography* 8.378.

13) Hans Conzelmann, *1 Corinthians*, Tr. by J. W. Leitch,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5) 12 no. 97. 퍼니시도 콘첼만의 주장에 동의하며, 스트라본의 주장을 “선원들의 환타지”로 일축한다(Furnish, *II Corinthians*, 16)

14) C. K. Barrett,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ew York: Harper & Row, 1968) 3; Richard B. Hays, *First Corinthi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4.

15) 라틴어 제목은 “변신”을 뜻하는 *Metamorphoses*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 작품을 “황금 당나귀”(Asinus aureus)라고 불렀으며, 이런 연유로 흔히 “황금 당나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16) Furnish, *II Corinthians*, 13.

위가 없고, 교양이 없으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심하게 착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즐길만한 것을 찾기 힘들다고 썼다.¹⁷

(3) 종교적 특징

a. 그리스의 다신교적 배경

아테네에 갔던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던 것처럼(행 18:16), 고린도에도 그리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신전들이 가득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전 8:5-6)고 말했을 때, 그는 분명히 고린도의 이런 다신교적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2세기 그리스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Pausanias)가 남긴 여행기에 의하면, 실제로 고린도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아테나,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등의 조각상들로 가득했다.¹⁸ 고린도에 있던 가장 큰 신전은 현재도 터가 남아 있는 아폴론 신전이며, 파우사니아스는 아폴론 신전 근처에는 아테나의 신전도 있다고 기록했다.¹⁹ 이 외에도 도시를 지켜주는 행운의 여신인 티케와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있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연관해서, 특히 중요성을 가지는 신전은 광장 북쪽에 있었던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다. 현재에도 남아 있는 이 신전터에서는 신전을 찾아 온 환자들이 팔, 다리, 귀, 손, 손가락, 생식기 등 자신들의 환부를 본 따서 만들었던 테라코타 봉헌물이 대량으로 발굴되었

17) Alciphron, *Letters* 15.3.51; 24.3.60: Furnish, *II Corinthians*, 13에서 재인용.

18)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2.3.2; 2.3.3. 광장의 중심에는 특히 아테나 여신의 큰 동상이 있었다.

19)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2.3.4.

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몸과 몸의 각 기관에 대한 바울의 은유를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볼 수 있었던 이 봉헌물들을 연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²⁰

b. 이집트 제의

아폴레이우스의 『황금 당나귀』 마지막 권을 보면, 나귀로 변한 주인공 루키우스가 고린도 근처 항구인 겐그레아 해변에서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의 가호를 받아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그려진다.²¹ 실제로 파우사니아스는 자신의 기행문에서 겐그레아 항구의 한 쪽 끝에 이시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²² 당시 고린도에서 사용되던 안토니누스(Antoninus Pius) 황제의 동전에 새겨진 겐그레아 항구에는 이시스 여신이 항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²³ 그리고 최근에는 고고학자들이 잠정적으로 이시스 여신의 신전으로 판명한 이집트 양식의 복잡한 구조물을 발굴하기도 했는데, 재밌는 점은 이 구조물의 모습이 아폴레이우스가 묘사한 이시스 여신의 신전의 모습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²⁴

고린도에서는 이시스 여신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시대의 이집트 혼합신인 세라피스 역시 숭배되었다. 아폴레이우스는 아크로고린도에 오르면, 이시스 여신에게 봉헌된 두 개의 성소와 세라피스에게 봉헌된 두 개의 성소를 발견한다고 증언하는데,²⁵ 아쉽게도 이 성소들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크로고린도 근처에서 발굴된, 각각 주전 2세기와 주

20) Furnish, *II Corinthians*, 17.

21) Apuleius, *Metamorphoses* XI.

22)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2.3.3.

23) Dennis Edwin Smith, "The Egyptian Cults at Corinth," *HTR* 70 (1977): 202-203.

24) Dennis Edwin Smith, "The Egyptian Cults at Corinth," 209.

25)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2.4.6.

후 1세기 것으로 보이는 두 비문에 이시스와 함께 세라피스에게 봉헌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로마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고린도에는 이미 세라피스에 대한 제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린도 광장의 남쪽에 있는 상점 터와, 레게움 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상가 지역에서 각각 로마 식민지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세라피스의 대리석 머리 조각이 발견된 것도 고린도에서 세라피스 제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고고학적 증거이다.²⁶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많은 신들”을 언급했을 때는 비단 그리스의 신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까지도 포함했을 것이다.

c. 황제 숭배

학자들은 보통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2년 후(주전 44년), 원로원에 의해 신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을 로마 황제 숭배(imperial cult)의 기원으로 본다. 그의 양자이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생존해 있었을 때부터 신적인 영광과 경배를 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소아시아 지역의 식민지로부터는 주전 29년 무렵부터 신과 동등한 영예를 얻기 시작했다.²⁷ 아카이아 지방의 수도였으며, 이시미안 제전이 열리던 고린도에서도 1세기 초반부터 4년 마다 한번 씩 신격화된 카이사르를 기리는 일련의 경기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 후 레굴루스 총독(P. Memmius Regulus: 주후 33년부터 44년까지 모이시아-마케도니아-아카이아지역을 다스림)은 현재 통치 중인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경기들을 추가하기도 했다.²⁸ 실제로 고린도가 로마 식민도시가 된 직후부터 이미 황제 숭배가 활성화 된 사실은 현존하는 이 시기 고

26) Smith, “The Egyptian Cults at Corinth,” 218; 224.

27) S. R. F. Price, *Rituals and Power: The Roman Imperial Cult in Asia Minor* (Cambridge, 1984) 54.

28) Furnish, *II Corinthians*, 19.

린도의 비문들로부터도 관찰된다. 비문에서 제사장이 언급되는 총 31번의 사례 중 20번이 바로 황제 제의를 위한 제사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²⁹

그러나 존 바클레이(John M. G. Barclay)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로마 식민지에서의 황제 숭배는 그 지역의 종교적인 전통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해졌다고 보다는, 해당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종교적 관습이나 제의와 결합하는 식으로 행해졌다.³⁰ 실제로 고린도의 광장에는 다른 그리스 신전들 옆에 황제의 가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신전이 함께 지어졌는데, 이 신전은 주후 77년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 후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누이인 옥타비아를 기리기 위한 신전으로 봉헌되었다.³¹

3. 편지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당시의 상황은 사도행전 18장에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행 18:1-18). 사도행전 18장에 묘사된 내용과 고린도전후서의 내용을 참고로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의 정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편지를 쓴 시기와 장소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간 시기는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였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신과 생업이 같은 아굴라

29) D. Engels, *Roman Corinth: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Classical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102.

30) John M. G. Barclay, *Pauline Churches and Diaspora Jews* (Grand Rapids: Erdmans, 2011) 352-53.

31) 파우사니아스도 고린도 광장의 상가 위에 위치한 이 옥타비아 신전을 목격했다고 기록했다(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2.3.1).

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를 통하여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행 18:1-8).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행 18:11), 이 때의 시기는 당시 아가야의 총독이 갈리오였다는 사실로부터(행 18:12) 주후 50-52년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³²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 및 안디옥 교회로 복귀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에베소로 와서 3년간 정착해서 선교활동을 한다(52/53년부터 54/55년 정도까지 에베소에서 머무른 것 같다). 고전 16:8(“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을 참고하면, 바울은 에베소 선교가 끝나갈 무렵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54/55년 봄).

(2) 편지를 쓴 정황 및 목적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다. 5장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32) 이 때의 연대가 주후 50-52년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이유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갈리오 총독의 후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비문의 파편들이 델피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델피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쇠락을 염려하며, 이 도시에 새로운 이주민을 받기를 독려하는 내용인데, 클라우디우스는 자신이 26번째 공적인 찬사(acclamation: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의 공적을 쌓았을 때, 대중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축하를 받는 일종의 행사)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보냈다고 적고 있다. 다른 기록에 의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27번째 찬사를 받은 시기를 52년 1월부터 52년 8월 사이로 확실히 추정할 수 있고, 그가 그 전에 받은 공적인 찬사의 시기와 비교해 보면 이 비문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51-52년 무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총독으로의 재임 기간은 매해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세네카의 형이었던 갈리오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시기는 세네카가 유배지로부터 귀환한 49년 이후라고 생각되므로,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의 총독으로 일했던 시기도 대략 주후 50-52년 사이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세네카와 플리니우스의 글로부터 갈리오는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아카이아 지방을 떠났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는 정황상 주후 51-52년 사이에 아카이아 지방의 총독직을 수행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Jerome Murphy-O'Connor, *St. Paul's Corinth* (Wilmington: Glazier, 1983) 141-150을 참고하라.

하였거니와”(9절)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또 다른 편지가 있었고, 그 내용은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라는 바울의 권면을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이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했다(고전 5:9-13). 하지만 우상 숭배, 음행,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만연하던 고린도에서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이 아닌 분리를 뜻했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 음행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시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 “먼저 보낸 편지”는 남아 있지 않다.³³ 그리고 그 편지를 먼저 보내고 나서, 바울은 두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방문을 받았던 것 같다. 첫 번째 그룹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었다(고전 1:11). 당시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여성이 그 집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글로에가 고린도에서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녀가 운영하던 어떤 사업과 연관된 사람들 혹은 그녀를 위해서 일하던 종들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글로에가 운영하던 사업은 아마도 에베소와 고린도를 오가는 여행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글로에의 집 사람들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려줄 수가 있었을 것이다.³⁴ 그들이 알려준 가장 중요한 소식은 고린도 교

33) 일부 학자들은 예전에 보낸 편지의 일부가 고후 6:14-7:1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본문에는 “음행”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34) 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2000) 121;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

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다(고전 1:11-13; cf. 11:18).

에베소에 있던 바울을 방문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교였고(고전 16:17), 그들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의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들고 온 것 같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너희가 쓴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후의 내용들은 바울이 이들이 가져 온 편지의 내용들에 대하여 직접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7장 이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로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전해 준 고린도교회의 최근 문제들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전해 준 내용들은 중복된 내용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들이 어느 그룹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다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바울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가져 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권면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다루고 있는 교회의 현안들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유대 관계(1-4장), 성적인 부도덕(5:1-8; 6:12-20), 성도들 사이의 법적 소송 문제(6:1-11),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문제(7:1b-40),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문제(8:1-11:1), 성찬과 연관된 문제(11:17-34), 공동체 예배와 연관된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12:1-14:40),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논쟁들(15:1-58),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에 대한 문제(16:1-4) 등이다.

(3)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볼 때 대체로 하층민에 속하는

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7) 54.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상류층 인사도 포함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이런 추론의 근거는,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사회, 경제적으로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근거 구절로 사용된 고전 1:26의 말씀이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
다.”

이 구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많지 않은”(οὐ πολλός)이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에서 지혜로운 자와 권력이 있는 자와 출신이 좋은 자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고전 11:17-34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 때 교회 내의 “빈궁한 자”들이 가진 자에 의해 소외 당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교회 안에 경제적인 지위 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에서 적지 않은 일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35) 초기 기독교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빈민들이었다는 이른바 “옛 합의”(old consensus)를 이끌어 낸 인물은 독일의 신약학자 아돌프 다이스만(Adolf Deissmann)이었다. 그는 20세기 초에 발굴된 많은 파피루스 자료들을 검토하여, 여기에서 사용된 서민들의 언어가 신약성경에 쓰인 언어와 유사함을 근거로 초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70년에 들어 게르트 타이센(Gerd Theissen), 웨인 믹스(Wayne Meeks) 등의 학자들은 초대 교회에는 사회의 최상층과 최하층을 제외한 다양한 계층이 섞여져 있었다는 “새 합의”(new consensus)를 도출했다. 특히 타이센은 고린도전서를 분석해서 “새 합의”를 뒷받침하는 다음의 소논문을 발표해서,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G. Theissen,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Corinthian Community: A Contribution to the Sociology of Early Hellenistic Christianity,” i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Edinburgh: T. & T. Clark, 1982) 69-119.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몇몇 고린도 교회 구성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했던 인물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는 소스테네(1:1)와 그리스보(1:14)와 같은 유대인 지도층에 속한 인물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소스테네와 그리스보는 모두 유대인 회당장(18:8, 17) 출신이었다. 로마서 16장에서 고린도 시의 재무관으로 소개되는 에라스도(롬 16:23; cf. 행 19:22; 딤후 4:20) 역시 고린도 시민들을 위해 자비로 보도(public pavement)를 깔았다는 비문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며, 성도들을 섬겼을 것으로 보이는 스테바나(고전 16:15-18),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 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뵈뵈(롬 16:1-2), 바울과 온 고린도 교회를 돌보아 준 사람으로 묘사된 가이오(롬 16:23) 등도 상당한 재력을 지닌 인물들로 생각된다.

제롬 머피 오코너(Jerome Murphy-O'Connor)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큰 집은 약 30명에서 최대 50명의 인원을 한번에 수용할 정도의 규모를 가졌다고 한다.³⁶ 그리고 고전 1:12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만약 개별의 가정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린도 교회는 몇몇의 가정 교회들로 구성되었고, 전체 인원은 최대 150~200명 정도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물론 이 수치는 추정에 불과하다).

4. 맺으며: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당시의 고대 로마 식민 도시였던

36) Jerome Murphy-O'Connor, *St. Paul's Corinth*, 156.

고린도의 모습과, 그 편지를 쓴 당시의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이런 배경적 지식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고대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놀랄 정도로 닮아 있다. 교회 내 구성원들 사이의 분열, 성적인 범죄, 다른 경제 계층 간의 갈등, 잘못된 영적 은사 사용의 문제, 교회 리더십과 연관된 문제 등 2천 년 전 그리스의 한 교회에서 겪었던 문제들 중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고대 교회의 자화상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전서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반성하고, 새롭게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해 준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of 사도”(1:1)로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며 편지를 맺는다(16:24).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한다(2:2). 오직 그에게는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었다(1:17-25; 6:14; 15:15). 즉,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위에 정초해 있었고(2:2; 11:23-26; 15:3-8),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 가길 원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Cited References

- Alciphron, Aelian, and Philostratus. *The Letters of Alciphron, Aelian, and Philostratus*. Translated by A. R. Benner and F. H. Fobes. Loeb Classical Library 38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 Appian. *Roman History, Volume I*. Edited and translated by Brian McGing. Loeb Classical Library 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12.
- Apuleius, *Metamorphoses*. Edited and translated by J. Arthur Hanson. Loeb Classical Library 44.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Aristophanes. *Fragments*. Edited and translated by Jeffrey Henderson. Loeb Classical Library 50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 Barclay, John M. G. *Pauline Churches and Diaspora Jews*. Grand Rapids: Eerdmans, 2011.
- Barrett, C. K.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ew York: Harper & Row, 1968.
- Conzelmann, Hans. *1 Corinthians*, Tr. by J. W. Leitch,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5.
- Engels, Donald W. *Roman Corinth: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Classical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Fee, Gordon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7.
- Furnish, Victor Paul. *II Corinthia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Hays, Richard B. *First Corinthi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Homer. *Iliad, Volume I: Books 1-12*. Translated by A. T. Murray. Revised by William F. Wyatt. Loeb Classical Library 17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4.

McKnight, Scot. *Reading Romans Backwards: A Gospel of Peace in the Midst of Empire*.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9.

Murphy-O'Connor, Jerome. *St. Paul's Corinth*. Wilmington: Glazier, 1983.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Volume I: Books 1-2 (Attica and Corinth)*. Translated by W. H. S. Jones. Loeb Classical Library 9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18.

Plato, *The Republic*, Translated. by Tom Griff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liny. *Natural History, Volume I: Books 1-2*. Translated by H. Rackham. Loeb Classical Library 33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Price, S. R. F. *Rituals and Power: The Roman Imperial Cult in Asia Min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Smith, Dennis Edwin. "The Egyptian Cults at Corinth," *HTR* 70 (1977): 201-231.

Strabo. *Geography, Volume I: Books 1-2*. Translated by Horace Leonard Jones. Loeb Classical Library 49.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17.

Theissen, Gred.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Corinthian Community: A Contribution to the Sociology of Early Hellenistic Christianity," i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Edinburgh: T. & T. Clark, 1982) 69-119.

Thiselton, Anthony C.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2000.

Watson, Francis. *Paul, Judaism, and the Gentiles: beyond the new perspective*. Grand Rapids: Eerdmans, 2007.

Wiseman, James R. "Corinth and Rome I: 228 B.C.-A.D. 267," ANRW II, 7/1 (1979): 438-548.

———. *The Land of the Ancient Corinthians* (Göteborg: Åströms, 1978) 11-12.



고린도전서 해석과 강해

황원하 박사(Ph.D., 신약학, 산성교회)



1:1-9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서신의 서두에는 일반적으로 서신 전체에 나올 주제들이 간략히 소개된다.

1-3절: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바울 서신의 서두에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것은 당시 그리스-로마 서신의 패턴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바울은 당시의 일반적인 서신 형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 서신의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이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거룩하

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묘사된다. ‘거룩한 자’와 ‘성도(거룩한 사람)’는 같은 뜻을 가진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구별된 자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다.

4-9절: 감사의 말

바울 서신에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이후에 대체로 감사의 말이 나온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그가 하고자 하는 권면과 연결되어 있다. 즉 앞으로 그가 말할 내용이 감사의 말에 집약되어 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다. 5절은 4절에 언급된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혜는 모든 일에 풍족한 것이었다. 특히 그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 언변과 지식은 고린도(+헬라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다(참고. 8:1-3, 10; 12:8; 13:2; 14:1-40).

1:10-17 그리스도가 나뉘었는가?

서신의 서두 후에 10절부터 본론이 시작된다. 1장에서 인칭의 변화에 따라 문단이 바뀐다. 즉 1인칭 단수(1:10-17), 1인칭 복수(1:18-25), 2인칭 복수(1:26-31)가 된다.

10-13절: 분쟁 소식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비슷한 단어를 연달아 사용함으로써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글로에의 집 사람들”(톤클로에스)이란 글로에라는 여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거나 사업동

료들이거나 아니면 가족들일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다. 글로에의 집 사람들은 사업문제 등으로 에베소(고린도전서 기록장소)와 고린도를 왕래하면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주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파당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지 구호(watchword: “나는에게 속한다”, “I follow”.)를 외치고 있을 뿐 아직 조직된 형태의 파당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3절에는 세 개의 연속된 수사학적 물음이 나온다.

- 1)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 2)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 3)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17절: 일치의 바탕 - 십자가와 세례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분쟁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세례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더욱이 세례를 받은 다른 사람들(교회)과 하나가 된다. 이처럼 세례는 교회 연합의 상징이며 증표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가 분쟁의 소재와 원인이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1:18-31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

바울은 이 단락에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분열로 이끌어간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므로 세상적인 교만과 자랑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18-21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사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곧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단락에서 ‘미련한 것’과 ‘능력’이라는 표현은 각각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였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였다(참고. 1:22). 따라서 바울은 그러한 관심사를 반영하여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였고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22-31절: 복음의 능력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는 구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은 표적(sign)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wisdom)를 찾는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였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많은 표적을 행해 보라고 요구했던 것을 기억나게 한다(참고. 마 16:1-4; 막 8:11-12; 눅 11:16; 요 2:18-20). 그리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다는 말은 헬라인들이 문명화된 민족으로 자부하면서 지혜를 최고의 가치에 두었던 것을 반영한다(참고. 행 17:21; 롬 1:14). 바울은 “우리[그리스도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와 패배의 상징으로 보며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따라

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능해 진다.

2:1-16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단락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오직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함으로써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1-5절: 복음의 능력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표현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과 우월한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것 등을 뜻한다. 특히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울은 세상의 지식을 배격하거나 세상의 지식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단지 보다 본질적인 것(복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3절의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만 바울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4-5절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란 복음에 동반되어 일어나는 이적들과 복음 자체의 변화시키는 힘을 뜻한다.

6-16절: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유대의 묵시사상적인 표현으로서 하늘에 속한 지혜,

고상한 지혜, 아직 세상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지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담겨 있는 지혜를 뜻한다. 그런데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추어진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감추어진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실로 인간의 사변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

3:1-23 교회에 대한 은유

바울은 세 개의 은유를 사용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3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3:1-4 서언: 영적 어린아이들

3:5-9 은유 1: 밭으로서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라야 한다.

3:10-15 은유 2: 건물로서의 교회: 성도들은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

3:16-17 은유 3: 성전으로서의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3:18-23 결어: 반복과 요약

4:1-21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이 단락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를 말한다. 즉 일꾼이 갖

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언급한다.

1-5절: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데, 자신들(사도들, 여기서는 바울과 아볼로)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헬라어 성경에서 복수 형태인 ‘비밀들’(mysteries)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복음(참고. 엡 6:19)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두신 모든 진리(참고. 롬 11:25; 고전 15:51; 엡 3:4, 6; 5:32; 골 2:2)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드러내셔야 알 수 있다(참고. 단 2:18-19, 28; 엡 1:7-9).

6-13절: 고난을 참음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인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자신들이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로마 군인들의 승리 행진을 연상하게 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길에서 전차를 타고 행진할 때 패배한 군대의 장수들은 행렬의 맨 뒤에 질질 끌려간다. 그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모욕과 조롱을 받았다.

14-21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서 바르게 살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책망하였다. 그는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5:1-13 교회의 정체성을 지킴

5장은 음행의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음행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연관된다..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장소였던 고린도에 음행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쉽게 음행을 저질렀다.

1-8절: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대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은 한 남자 교인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후처?)를 취한 일이었다. 아마도 남자는 교회에 나오고 있었고, 여인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4-5절은 교회의 치리에 대한 언급이다(참고. 마 18:15-20). 교회는 죄를 경계해야 한다. 6-8절은 누룩 은유이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말하면서 죄의 급속한 전염성을 강조한다(참고. 갈 5:9). 특히 음행이라는 죄는 전염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에 물들어 있던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을 사소하게 여겼다.

9-13절: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바울이 말하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성도는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아야 한다.

6:1-11 성도들 간의 송사

바울은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다 마치지 않았다. 그는 5:12-13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와 연관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인 성도들 간의 송사에 대한 문제를 6:1-11에서 다룬다. 그는 송사에 대한 언급을 마친 후에 6:12-20에서 다시 음행의 문제로 돌아간다.

1-6절: 성도들 간의 송사는 교회가 다루어야 함

바울은 성도들 간에 다툼(분쟁)이 일어났을 때 세상 법정에 고발한 일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성도들 당사자를 나무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방치하고 묵인한 교회도 나무란다. 이 사안을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교회의 문제를 외부에 가져가는 것은 교회의 영광을 파괴하는 일이며 나아가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7-11절: 성도들 간에는 아예 송사가 없어야 함

성도들은 피차 고발함으로 그들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도들 사이의 고발은 그 자체가 이미 허물이다. 설령 한쪽이 이겼다 하더라도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이다. 성도들 간의 송사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따라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참고, 마 5:38-48). 9-11절은 성도들 간의 송사의 결과이다. 송사를 통해 이익을 구하려다가는 진정한 이익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6:12-20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12-20절에서 다시 음행의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는 1-11절에 나오는 성도 간의 송사와 다른 종류가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적인 덕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관된다. 바울은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속이 몸을 포함한다는 부활사상을 말한다. 분명히 육체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육체의 중요성이다. 바울은 15장에서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상세히 다룬다.

7:1-40 결혼과 이혼과 독신

5-6장의 음행에 관한 언급은 7장에서 혼인에 대한 문제로 연결된다. 즉 7장은 혼인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바울은 여기서 혼인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다룬다. 그의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적용방안이 된다.

1-7절: 혼인한 자들의 부부관계

바울은 음행을 막기 위하여 혼인을 장려한다. 물론 혼인의 목적이 음행을 막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다만 혼인을 통하여 음행을 일으키는 성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혼인 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는 합당하다(참고, 창 2:24; 엡 5:31).

8-16절: 혼인과 이혼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가모이’는 홀아비들(widowers)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 헬라어에는 홀아비를 가리키는 단어가 없으며,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25-38절에서 별도로 언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홀아비들과 과부들에게 주는 것이다.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17-24절: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 규칙

바울은 잠시 혼인에 관한 가르침을 멈추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일반적 규칙을 언급한다(17, 20, 24절). 그리고 일반적 규칙과 함께 종교적 신분(유대인과 이방인, 18-19절)과 사회적 신분(자유인과 종, 21-23절)에 관한 교훈이 이어진다. 일반적 규칙이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의 신분 그대로, 지금의 형편 그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 신분(유대인과 이방인)이란 할례자라고 해서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무할례자라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신분(종과 자유인)은 종과 자유인의 문제인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이었으면 종으로 지내고 자유인이었으면 자유인으로 지내야 한다.

25-40절: 처녀들과 과부들에게 주는 교훈

바울은 처녀들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혼인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란 종말론적인 용어이다(참고. 단 12:1; 계 7:14).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처녀들은(총각들도 마찬가지) 군

이 결혼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혼자 지낼 수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는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할 때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여기서 ‘주 안에서’ 하라는 표현은 믿는 자들과 결혼 하라는 것이다.

8:1-13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는 8-10장에서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제시한다. 그의 요지는 우상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도 먹을 수 있으나, 이러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여 그것을 보고 실족하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9:1-27 권리를 포기함

바울은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가운데, 9절에서 성도들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13절에서 결론을 말하면서 자신이 이 일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8장에 나타난 바울의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은 이제 9장에서 그의 권리 포기 선언으로 구체화된다. 그는 이 장에서 자신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

음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청한다. 그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오히려 많기 위해서이다. 그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에 힘들었지만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가면서 직무를 수행했다.

10:1-13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

10장의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으며, 자신도 영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어떤 마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세례와 성만찬이 어떤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게다가 그것들이 구원을 보증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한다.

1-5절: 출애굽 모형론 - 세례와 성찬

출애굽 모형론(typology)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든 신자(이방인 포함)의 영적 출애굽을 예표한다.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이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성찬이다.

6-13절: 과거의 역사는 지금의 본보기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 실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

람들이 저질렀던 악을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네 가지 범죄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원망이다.

10:14-33 삶의 원리와 실제

앞 단락(10:1-13)은 삶의 원칙인데, 이제 본문은 그러한 원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4-22절: 우상의 연회와 주님의 만찬

바울은 앞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나타난 비극적인 파멸을 전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촉구한다. 16-21절에 세 종류의 식사(성찬, 희생 제사 후의 식사, 우상 신전에서의 제사)가 나온다. 바울은 이 식사를 통하여 참석자와 신(god)의 교제, 그리고 참석자들 상호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23-33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바울은 그동안(8장부터)의 우상 숭배에 관한 논의를 종결한다. 그는 음식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몇 가지 준 후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한다.

실제적인 행동 지침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25-26절: 행동 지침 1 -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개 종교 의식을 마치고 난 후에 공급되었으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 행동 지침 2 - 불신자에게 초청을 받아 음식을 먹을 때에는 묻지 말고 그냥 먹는 것이 좋다. 괜히 물어보았다가 양심에 거리킨다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28-30절: 행동 지침 3 - 만일 불신자에게 청함을 받아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한다.

11:1-16 예배드리는 자의 예의

이 단락에서 바울이 주는 교훈은 다음의 세 가지다.

- 1)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 2) 남자와 여자는 외모와 의상에 있어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 3)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단정한 복장과 정결한 외모를 갖추어야 한다.

11:17-34 합당한 주의 만찬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서 또 다른 문제는 주의 만찬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한 바른 교훈을 준다. 본문의 요지는 성도들 간의 일치와 화합이다.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이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단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1:17-22 문제점

11:23-26 주님이 허락하신 성찬

11:27-32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

11:33-34 성도들을 사랑함

성찬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교제를 포함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 성찬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주님의 구속 사역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12:1-31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회의 예배 때 나타났던 문제점들 가운데 마지막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이었다. 고린도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아시아와 이집트에서 비롯된 신비주의가 쉽게 들어왔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결부되어 열광적 혼합주의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바울은 12-14장을 할애하여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룬다.

1-11절: 은사들

은사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특정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서로의 은사에 관하여 시기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12-26절: 한 몸과 여러 지체

바울 당시에는 사회적 단결을 요청하기 위하여 몸의 유추를 많이 사용했다.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유추한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시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한 인간이 된다(참고. 갈 3:27-28). 따라서 성도들 간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참고. 골 3:9-11).

27-31절: 다양한 은사들과 직분들

여기에 적시된 은사들에 대한 언급은 단지 은사의 종류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들이 힘을 합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은사와 직분>

1) 사도(apostle): 제자 11명(가롯 유다 제외), 바울(롬 1:1), 맛디아(행 1:26), 바나바(행 14:14),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갈 1:19), 실라(살전 2:6),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롬 16:7) 등

2) 선지자(prophet): 말씀을 전하는 자들(행 11:28; 21:9, 11; 15:32; 고전 14:29 등)

3) 교사(teacher): 지역교회를 섬기는 자들(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활동은 광범위) - 이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각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당시에는 목회자 체계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역교회 목회자로 볼 수 있다.

4) 그 밖의 은사들: 능력 행함, 병 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31절은 가교구절이다. 31a절은 12장과 14장을 연결하고, 31b절은 12장과 13장을 연결한다. 즉 13장은 사랑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임을 말하고, 14장은 사랑이 은사의 사용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13:1-13 사랑 - 가장 좋은 길

13장은 사랑이 은사를 대체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길(방식)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즉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예배를 어지럽힌 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장은 사랑이 어떤 것이며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인지를 역설한다. 그리하여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1-3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라도 유익이 없다.

4-7절: 사랑의 속성

사랑의 속성 열 가지가 제시된다. 처음 두 가지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반영하며(긍정적 묘사: “~하며”), 나머지 여덟 가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속성을 반영한다(부정적 묘사: “~하지 아니하며”).

8-13절: 사랑의 영원성

사랑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사는 한시적이다. 은사는 언젠가 없어진다. 따라서 한시적인 은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14:1-25 방언과 예언

14장은 사랑이 은사 사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룬다.

1-5절: 방언보다 예언을 구함

1절은 전환구절로서 13장을 요약하고 14장의 방향을 설정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비적 열광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방언이 예언보다 절대적으로 하등하다는 말이 아니다. 모든 은사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이것은 다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고려한 언급이다.

6-12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함

6절은 명제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

13-19절: 방언은 통역되어야 함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본인이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다(참고. 12:10, 30; 14:28).

20-25절: 방언과 예언이 불신자에게 미치는 영향

바울은 방언과 예언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한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한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하면(예언)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14:26-40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26-33a절: 질서있게 예배하라

26절은 명제이다. 예배의 요소들은 찬송시, 말씀, 계시, 방언, 방언 통역 등이다.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은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을 좋아하신다. 따라서 성도들은 은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질서와 화평을 좇아야 한다(참고. 40절).

33b-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바울은 교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말한다. 그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여인들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여인들이 무분별하게 말했고, 이러한 행위가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율법(창조질서, 창 3:16)에 이른 것 같이 여인이 남자에게 복종하여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자제하고 요청한다.

36-40절: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임한다. 그리고 은사를 적극적인 사용해야 하는데,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

15:1-58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제 바울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이는 고린도 교인 중 일부가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이다(참고. 12절).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주제는 죽음이다.

1-11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신빙성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강변한다. 부활의 역사적 신빙성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모든 논의가 의미 없다.

12-19절: 만일 부활이 없으면(1)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부활의 사실성을 주장한다. 즉 부활이 없을 때의 비참한 상황을 강하게 드러낸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헛되고 신앙이 무익하다.

20-28절: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결과

바울은 “그러나 이제”(nunide)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의 전환을 꾀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다. 비록 예수님 이전

에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었지만(예. 나사로) 그들은 다시 죽었다.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앞으로 많은 열매들(대규모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29-34절: 만일 부활이 없으면(2)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참고. 4:11-13, 고후 4:8-12, 6:3-10, 11:23-33).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한다. 또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한다. 필시 부활 신앙은 현재의 삶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다.

35-49절: 부활의 몸

바울은 부활한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자연의 유추로부터 부활한 몸에 대하여 추론한다(42-44절).

- 1) 육체는 썩지만,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 ->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 2) 육체는 욕되지만, 부활체는 영광스럽다. -> 육체는 죄를 짓는다.
- 3) 육체는 약하지만, 부활체는 강하다. -> 육체는 병에 걸린다.
- 4) 육체는 육의 몸이지만,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다. -> 육체는 한계를 가진다.

45-49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한 것이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living being)이며, 육의 사람이며,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이며, 현재의 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life-giving spirit)이시며, 신령한 사람이시며, 하늘에서 나셨으며, 하늘에 속한 분이시며, 부활한 몸이다.

50-58절: 그리스도인의 승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홀연히 다 변한다.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후에 살아 있는 자들이 변화된다(참고. 롬 11:25; 고전 2:7; 롬 16:25-26; 고전 4:1; 13:2; 엡 3:3-4, 9, 골 1:26-27 등). 그리하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이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16:1-24 마지막 권면과 인사

1-4절: 성도를 위한 연보

바울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말한다. 바울은 여러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시행할 것을 권면하였다(참고. 갈 2:10).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신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3절; 참고. 행 11:28-29; 롬 15:26 이하).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모금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일치를 꾀하였다(참고. 고후 8:4, 9:13; 롬 15:26).

5-12절: 여행 계획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간 사역했다. 그는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당시는 3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으로 보인다. 그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방문하여 겨울을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참고. 행 20:1-2).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다음 목적지로 가는 것에 도움(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13-24절: 마지막 권면과 인사

13절에는 네 개의 동사를 사용한 권면이 나온다. “깨어 있어라.”(be on your guard) “믿음에 굳게 서라.”(stand firm in the faith) “남자답게 용감한 사람이 되라.”(be men of courage) “강건하라.”(be strong). 이 권면은 일반적인 것이다. 14절은 네 개의 권면에 사랑을 붙인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성도들의 문안인사를 전달한다. “아시아의 교회들”이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한때 고린도에서 천막제조업을 하면서 바울을 도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행 18:1-3).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따라 에베소에 이주하여 사업을 하면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행 18:18-26). “모든 형제들의 문안”은 에베소 교인들의 문안 인사를 뜻한다. “주여 오시옵소서”는 아람어로 ‘마라나타’(Maranatha)인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원하는 종말론적 기도이다.



고린도전서 난해구절과 이슈

문장환 박사(Ph.D., 진주삼일교회)



고린도전서에서 번역이나 해석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논쟁을 가져올 만한 구절들은 제법 보인다. 고린도전서는 당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과 질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에서도 적용할 주제들이 많다. 교회의 분쟁의 문제, 사역자의 위치 문제, 도덕적인 죄의 문제, 법정 투쟁 문제, 결혼과 재혼의 문제, 우상제물의 문제, 교회 바깥 사람과 관계 문제, 은사 문제, 특히 방언과 예언의 문제, 성찬 문제, 질서 문제, 교회내 여자의 행동의 문제, 성도 부활 교리의 문제, 연보의 문제 등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많은 실천적인 교훈과 기준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사역자를 다룬 고린도후서와 더불어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실제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보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상당한 논란을 가져오는 이슈들도 있다. 예를 들면, 6장 1-11절에서 바울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교회가 관여되어 있는 송사들이 세상 법정에 넘친다. 그렇다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실행해야 할지에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내 여자의 행동의 문제도 논란을 가져오는 이슈이다. 14장 34-35절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불순종하고 있다. 지금 교회에서는 여자는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하여 그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 집사로 권사로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교사로 가르치고 있고, 전도사로 일하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런 현상 속에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본문들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문맥에서 주해하고 그 원리들을 도출해 봄으로써 이런 이슈들을 성경신학적으로 다루어 보자.

1.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6:1-11)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성도는 세상 법정에 절대로 소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심지어 소송 건에 관계되면 안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본문의 교훈과는 거리가 멀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에서도 성도가 세상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참조, 로마서 13:1-3). 또한 어떤 문제라도 교인들끼리 소송을 하고 재판을 받으면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덮고 넘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은 그보다는 제

한적으로 요구한다.

(1) 본문의 해석

고린도전서 6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어떤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분개하는데, 이는 교인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5장의 근친상간의 문제와 6장 후반부의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와 함께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된 문제는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한 것에 있다.¹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 법정에 소송한 교회가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실망과 분개를 표출하고(1-4절), 그것은 형제 간에 불의를 행한 것이라고 책망하고(5-8절), 모든 불의로부터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교회 정체성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9-11).

1) 구원받은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실패한 교회(6:1-4)

1절에서 “구태여(*Τολμᾶ*)”란 단어를 첫머리에 둠으로 바울은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간 문제를 구태여 세상의 법정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세상 법정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며, 교회 안의 형제들을 “성도”라 지칭함으로써, 고린도교회가 성도들의 문제를 불의한 자들에게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했음을 지적한다.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비기독교인 재판관으로부터 기독교적 가치들이 무시당할 것이며, 법정으로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복과 탐욕이라는 비기독교적 동

1) R. B. Hays, 현대성서주석 Interpretation 고린도전서, p. 170;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p. 280.

기이며, 교회 이미지의 실추와 복음이 방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²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은 본래 의를 세우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불의한 자들(τῶν ἀδίκων)”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도덕적으로 불의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³ 그리고 고린도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고린도인들이 “종말론적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이전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새롭게 된 생활방식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고발된 사건을 3절에서 “세상 일”이라고 부르는데, 헬라어 “βιωτικά”는 평범한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킨다.⁴ 7-8절을 참조해 보면, 이 사건은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싼 분쟁일 것이다. 고린도는 로마의 관습을 철저히 따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1세기 중엽의 로마의 법정 소송을 그대로 따랐다. 당시의 로마 형법은 비교적 공정하였지만, 민법은 상당히 불공정하였다.⁵ 상류층 소송 당사자들에게 편향적이어서, 대부분의 민사소송 사건은 부유한 상류층의 권력자들이 하층의 가난한 사람들을 소송한 것들이다. 판사들과 배심원들은 모종의 대가를 기대하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게다가 자신들을 변호해 줄 변사들을 고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판사들을 매수하였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동료 교인에게 민사소송을 주도한 교인들은 권력층 출신의 사람들이고 고소를 당한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배경이 바울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음험한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세상 법정을

2) G. Osborne, 적용을 도와주는 고린도전서, pp. 131-132.

3) 김지철, 고린도전서, p. 246.

4) D. E. Garland, 1 Corinthians, p. 204.

5) A. C. Thiselton, 고린도전서, p. 166.

이용하는 것에 분노하였다.⁶

2-3절에서 바울은 현재 상황을 종말론적 실재의 차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이런 행태들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바울은 구약과 유대 묵시문학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상과 거기에서 추론된 것을 가지고 오는데,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참조, 단7:18,22), 심지어 천사들도 심판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이런 언급들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종말론적 실재에 비하면 경제적 분쟁의 세상 법정 소송은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하다는 것이다. 이 분쟁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인간의 소송이 마지막 심판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사소하다는 것이다.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분개와 걱정의 말을 반복하면서, 고린도인들이 어째서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는지 힐난하고 있다. 세상 법정의 사람들을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τοὺς ἐξουθενημένους)”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이다.⁷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육적인 세상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에 관해 재판을 받을 것인가?

2) 정의(正義) 실현에 실패한 교회 (6:5-8)

5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한다. 무엇이 그들의 부끄러운 일인가? 첫째는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 부끄러운

6) 권연경,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 p. 232.

7) G. Osborne, 고린도전서, p. 134.

일이요, 둘째는 그 분쟁을 세상 법정에 호소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요, 셋째는 그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고린도교회 공동체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지혜 있는 자(σοφός)가 한 명도 없다”는 책망은 만일 분쟁의 소송을 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한다면 더 신랄하게 책망하는 말인데, 외부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사실이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6절에서 바울이 더욱 한심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하는” 모습이다.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 모습이다. 형제끼리 계속되는 분쟁과 고발은 창피한 일로 중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형제끼리 분쟁의 핵심에는 물질적 경제적 탐욕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 분쟁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모두 탐욕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교회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 필요하다면 스스로 재판관을 내세워서 처리해야 한다(참조, 신 1:9-17; 16:18-20).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은 외부인들이 교회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이고,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7절에서 그 분쟁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철저한 패배이다. 승자는 없고 교회 전체가 패배자가 된다. 설사 한쪽이 세상 법정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사실상 관련자들은 모두 지고 만다. 왜냐하면 세상 법정에 송사함으로 그들 모두에게 허물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

도들이 세상 방식을 의지하는 것은 허물이다.⁸ 그래서 바울은 아주 과격한 말을 한다. 그렇게 세상 법정 송사에 끼어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한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불의라는 말은 법적으로 부당한 처사를 말하고, 속임은 속임수로 재물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상업적인 용어로 이 소송이 재물에 관한 논쟁임을 분명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얼마든지 온전한 지혜로 이런 문제들을 교회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전한 지혜가 없는, 심지어 불의한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교회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의를 포기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답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울의 분노였다.

8절에서 바울은 송사 사건에 연루됨으로 형제에게 알게 모르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게 되니까, 그것만은 피하라고 한다. 8절 초두에 “그러나 너희는(ἀλλὰ ὑμεῖς)”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나가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범위를 고린도교인 전체로 넓힌다.⁹ 바울의 분노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는 자의 법정 소송이 벌어지는 것과 더불어 탐욕스러운 교인들이 동료 교인들을 속이는 행동에 대한 것이다. 교회 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대항할 수 없는 법적 우위를 점하고는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고자 사실상 사기를 쳐서 가난한 교인들에게 해를 입혔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교회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는 언급으로 다시 한번 교회 내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8) R. B. Hays, 고린도전서, p. 173.

9)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p. 266.

3) 변화된 교회의 정체성 (6:9-11)

세상 법정 송사로 촉발된 바울의 분노는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이루어진 정체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탐욕적인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경고로 확대된다. 9-10절에 악의 목록은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행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의 특정한 행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알지 못하느냐 (*“Ἡ οὐκ οἶδατε*)”라는 도입구에 이어서 나오는 목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공식적인 문답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목록은 더욱 지속적인 삶의 스타일을 지칭한다.¹⁰ 여기에서 바울은 다시 종말론적 틀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곧 경제적인 탐욕으로 형제에게 법적인 부당함을 행하고 재물을 속여 빼앗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다가오는 세상의 훨씬 큰 상을 위태롭게 한다는 뉘앙스를 갖게 한다. 바울은 그러한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정체성과는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열 가지의 죄의 형태들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삶의 형태를 말하면서도, 그들의 탐욕과 밀접한 죄들이다.

11절은 이런 음울한 목록과는 사뭇 다른 방향의 희망을 보여주는 목록이 나온다. 과거에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다(*ἦτε*)”는 과거진행형으로 역시 그들의 지속적인 생활 스타일을 말한다. 그리고는 단순과거형 시제의 중간태 복합동사들이 동원되어서 이런 과거의 습관에서 완전히 변화된 상황을 강력하게 나타낸다. “씻음을 받았다(*ἀπελούσασθε*)”는 것은 세례와 관련된 말로써 세례를 통해 과거의 죄악된

10) A. C. Thiselton, 고린도전서: 해석학적 & 목회적으로 바라 본 실용적 주석, p. 168.

행실로부터 씻김을 받았다는 것이다. “거룩함을 받았다(ἡγιασθήτε)”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ἐδικαιώθητε)”라는 말은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씻김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불의한 자들 앞에 서려고 법정에 가는 것이 또 얼마나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인가를 지적한다. 변화된 교회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런 행태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악을 내어 쫓는 능력이며, 성령은 그 악 대신에 선을 채우시고 실행하는 능력이다.

(2) 본문의 한계와 교훈과 적용

이제 이 본문 중에 어떤 명령이나 규칙을 우리 시대에서 적용을 하려면 두 가지 면에서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살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당시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문맥 가운데서 살펴야 하는데, 우리는 앞서 주석을 통해서 그 작업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하였다. 이 주석작업을 통해 우리는 먼저 세상 법정 소송의 금지의 명령이 주어지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어서 원칙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적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한계

먼저는 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교인들 간에 일어난 민사적인 문제이다. 그러니 교회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재산상의 문제로 일어난 민사소송사건이다. 그것도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나온 소송

이다. 탐욕적인 상류층의 부자 교인이 하층의 가난한 교인을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것인데,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재판의 결과가 상류층 부자에게 기울어질 것이 예상되는 불공정한 소송이다. 안타깝게도 탐욕이 교인들 사이까지 횡행하였는데, 더 한심한 것을 그 탐욕을 위해서 세상의 법정까지 이용한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은 교회를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한 사건이다. 그들이 교회의 문제를 끼고 소송을 벌렸거나 아니면 그들만의 문제로 소송을 벌렸든지, 결과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아마 당사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당성 내지 합법성 심지어 정의의 회복을 주장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을 지 모르지만, 결과는 교회가 조롱을 받아 그들 모두가 패자가 되는 소송이었다.

둘째는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말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바울은 이 소송사건 소식을 듣고는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하는데, 단지 세상 법정에 교인간의 문제를 소송한 것만 두고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소송을 둘러싼 동기나 목적이나 방법이나 결과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책망하였다. 먼저는 사건처리의 행태를 책망하는데, 성도(교회)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치관이 다른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는 것을 책망한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도 심지어 천사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한다. 더불어 그런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지혜가 없음을 책망한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여 형제 사랑에 실패한 것을 책망한다. 그 형제 간의 다툼을 믿지 않는 자에게 가지고 간 것을 책망한다. 피차 고발한 결과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책망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책망한다. 이렇듯 바울의 책망은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 다만 이 모든 책망들이 세상 법정에 형제를 소송한 일로 말

미암아 표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교훈

본문에 나오는 금지는 모든 상황에 모든 것을 망라하는 절대적인 금지 명령은 아니다. 곧 교회와 교인은 어떤 경우라도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문을 통하여 교회와 교인이 관계되는 소송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들을 정립할 수 있다. 먼저, 세상법정에 소송을 금지하는 대상은 형사소송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사건에 한한다. 형사소송사건은 세상법정에서 취급하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권한을 두셨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도록 세상에 권세자를 두셨다고 하는데, 형사상의 죄를 다루는 곳은 일반 사회의 법정이다. 물론 교회도 교회 법에 따라 그 죄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처벌의 방법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르다. 둘째, 그렇다고 교인 사이의 모든 민사상의 문제를 교회에서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이나 인력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설령 교회가 다룬다 하더라도 그 선고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고, 때로는 국가의 시스템과 충돌할 위험도 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 두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에 부합되는 민사상 소송 사건이다. 하나는 그 소송으로 교회의 명성에 훼손이 가는 경우이다. 평소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오해를 하거나 공격할 요소들을 제공한다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둘째는 그 민사상의 사건이 개인적 탐욕으로 발동된 사건, 혹은 당사자들의 탐욕이 많이 개입된 경우이다. 당연

히 탐욕의 충족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희생하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사랑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세상 법정의 소송을 포기 내지 취하하고 교회의 판단과 권면을 요구하고 순종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 교회나 지도자나 혹은 당사자들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절차를 정하여서 성경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한다.

3) 적용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쉬운 방법이기예, 몇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각 경우들은 소송을 하는 경우와 소송을 당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경우는 형사건이 아니고 민사건임을 먼저 전제한다. 형사건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먼저, 교회와 세상 사이에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소송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정에 가야하고, 또한 교회가 사회의 특정 사람이나 조직체에게 분명한 민사적 배상이나 보상이 받아야 한다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둘째, 교회와 교회는 어떠 한가?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교인과 교인의 소송의 확장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양 교회나 혹은 기독교의 명성에 해를 끼칠 경우, 혹은 당사자 교회의 욕심에서 발로 된 소송인 경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양기관은 서로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교회와 이단과의 소송은 어떠 한가? 소송을 당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소송할 일이 있다면 그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이단의 주된 목적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기에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일반 사회에서는 다 같은 기독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쟁점을 보다 세상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해야 한다.

교회 내 사람들의 민사적인 다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서로 간에 처리하고, 그게 안되면 교회의 지도부에 도움과 판단을 청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면 상호 합의하에 세상 사법 시스템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교인과 타 교회 교인과의 문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된다. 교회와 세상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인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다툼을 해볼 수밖에 없다. 교인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상대방과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현저하게 복음을 방해할 경우, 혹은 내 탐심이 많이 개입된 경우라면 거듭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민사상의 문제라면 교회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상의 문제라면 세상 법정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 모든 경우들을 포함하여 어떤 소송 사건이든지, 다음의 원칙들을 정직하게 고려해보고 소송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송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소송의 동기가 무엇인가? 소송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방법을 닮았는가? 소송의 결과는 교회와 개인 신앙에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해를 주는가? 소송 건을 스스로 혹은 교회가 처리할 능력이 있지 않는가? 혹은 소송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유익과 해

를 따져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교회 안에서 여성의 활동 문제 (14:34-35)

14장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보면,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활동, 특히 언어 활동은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된다. 지금 교회에서 여자는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하여 누구 하나 제재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직분자로, 성경교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전14:34로 그런 일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 구절은 여성성직(목사)안수를 반대하는 규범적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엄격한 금지 조항으로 사용했다가 다른 경우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신학적 입장으로 접근해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신학적 입장보다 우선적인 것은 정확한 본문의 주해이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어야 한다.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본문을 읽고 있는 날줄과 씨줄을 잘 파악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서신 자체의 문맥, 사회적 문맥, 문화적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1) 본문의 사본학적 문제¹¹⁾

그전에 14:34-35의 진정성 문제가 먼저 취급되어야 하는데, 바울서신에서 흔치 않게 사본들 사이의 상이점이 존재하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몇

11) 보다 자세한 논의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라. 최갑종, 고전 14장 34-35절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pp. 52-54; D. E. Garland, 1 Corinthians, pp. 675-77.

몇 학자들이 사본학적 이유로 이 본문을 후대에 삽입된 非바울적인 본문으로 생각하였다.¹² 서방계열의 사본들과 소수의 라틴어사본들이 이 구절을 생략하거나 40절이후에 배치하였다는 이유이다. 더불어 여성의 기도와 예언 활동을 허용하는 고전 11:5과도 모순된다는 것과 서신의 문맥의 흐름에서도 빗나간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은 본문의 진정성을 주장하는데¹³ 대다수의 고대사본들과 역본들과 교부들의 증언들이 이 본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 증거들은 연대기적으로도 앞서고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다. 그래서 주된 헬라어 성경(NA 26판, 27판, USB 3판, 4판)은 34-35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전 11:5과 모순되게 보이는 것은 해석이 제대로 되면 해결되고, 문맥에서 어설피게 보이는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문의 진정성을 각하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인다.

(2) 고린도전서에서의 문맥

고전 12-14장의 배경에는 고린도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확대된 은사 사용 문제가 있다. 12장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13장은 은사의 사용 방법에,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 관계에 집중하는데,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14장 1-25절은 이해성과 소통성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우선한다는 것을 말하고, 26-40절은 그래서 방언을 말하려면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할 것을 권면한다. 바울은 무질서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교회를 통제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먼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

12)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로는 C. K. Barrett, G. D. Fee, R. B. Hays 등이 있다.

13) 대표적으로 A. C. Thisleton, D. E. Garland, B. Witherlinton, E. Ellis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하고(27-28절),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제하고(29-33절), 마지막으로 회중 가운데서 무질서를 일으키는 결혼한 여인들을 통제한다(34-36절). 결론부분에서 바울은 그렇다고 예언과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고 한다(39-40절).

(3) 사회적 문화적 맥락¹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헬라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문맥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숙한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예속되어서 그들의 허락 없이는 집을 나서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나가는 것도 일반적으로 금기 사항이다. 공공의 장소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여자는 창녀들만 가능했고, 여자는 가정에서 가사와 아이 양육에만 집중해야 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외부사람과는 접촉을 피했고, 부득이하게 집을 나서게 된 경우에는 외부인, 특히 외부 남자에게는 일절 말을 할 수 없었고, 남편에게 하거나 남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다만 특정한 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규범이 느슨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종교 영역에서도 여자 사제는 남자 사제처럼 활동하였지만, 성생활을 하지 않는 등 여러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또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자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것이다. 바울 당시의 헬라 여인들에게는 남자와는 달리 교육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수사학도 전혀 배우지 못하였고, 사회 활동이 거의 없었기에 일반적인 지식도 많이 모자랐다. 그러니 듣

14) 이 단락은 전반적으로 최갑종, 고전 14장 34-35절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pp. 54-57, 61-62을 참조하였다.

는 능력, 이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본래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이해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여인들은 이해와 지식의 면에서 남편에게 많이 의존되어 있었다.

(4) 본문의 이해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다. 이 명령은 교회에서 여자는 결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앞서 11장에서 바울은 여성이 기도와 예언으로 교회에서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리더십을 담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하였다. 또한 12-14장에 걸쳐서 방언과 예언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들의 행사에서 권면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반복되는 호칭, “형제들아”는 남성 여성 모든 교인을 포함한 총체적 호칭이다. 바울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권면하였다. 그 은사 중 하나인 예언의 은사는 말씀 사역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이 금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선 “말하지 말라”는 헬라어 “*σιγάτωσαν*”은 “침묵하라”는 말로, 28-40절에서 세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단어가 이 단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주목해야 한다.¹⁵ 바울은 교회의 모임 가운데 침묵이 필요한 여러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교회의 질서, 특히 공중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이 없으면 침묵해야 하고(28절), 예언을 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계시가 주어지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침묵해야 한다(30절), 그리고 한번 더 나오는 것이

15) G. Osborne, 고린도전서, p. 342.

여자는 교회 안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다(34절).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일반적인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요구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여자인 것은 틀림이 없다.¹⁶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여자는 침묵해야 한다.

그 특별한 상황은 35절에 나온다. 여기서 바울은 지금 교회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자세하게 기술하지는 않는다. 먼저 모든 여성에게 주는 금지가 아니라, 기혼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기 남편이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 그렇다고 침묵의 기준을 미혼과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기혼 여성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또 말하는 여자들인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교회와 교회의 예배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마치 통역 없는 방언이 교회를 소란하게 하듯이, 제재 없는 예언이 교회를 어지럽히듯이, 통제 없는 여인들의 소란이 교회에 질서를 깨뜨렸다.

그러면 남자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여자를 지목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가? 여기에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살펴 해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앞서 설명한대로 당시의 여자들은 안타깝게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지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다. 그런데 교회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허용되었을 때에, 여자들, 특히 기혼 여성들이 교회에서 질문을 하고 또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일로 예배가 자주 소란스러워졌다. 또한 여성이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도 질문하는 일로, 남편들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다소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

16) B. Witherington III, *Conflict & Community in Corinth*, p. 276.

하게 되었다. 이것은 가정 분란을 가져왔을 개연성도 있었다. 또한 일반 사회에서는 교회를 교양 있는 시민이 출입할 곳이 못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었다. 이런 소란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당시 집 밖에서는 침묵했던 것이 정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문화적 관습에서 볼 때 여자가 교회에서 그것도 공적인 예배에서 그것도 외간 남성들에게 질문하거나 혹은 예언을 말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에서 평화를 빼앗아가고,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화평을 앗아가고, 가정에서 평안을 몰아내고, 교회에서 질서를 깨뜨렸다. 그래서 바울은 남성들이 아닌 여자들에게 절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보편적인 여자로 확대해서 여성 전체에 대한 어떤 규범을 내놓듯이 말한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느니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명예와 수치라는 사회적 통제의 기제까지 가져와서 그의 명령의 근거로 삼는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사실,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없다. 다만 창3:16에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을 선언한 것으로부터 널리 받아들여지는 적용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부끄러운 것이니라” 라는 말은 당시 사회문화적 통념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여성 전체를 아우르는 듯한 명령과 그 근거로 인하여 이 본문을 교회에서 여성의 활동을 금지하는 규범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명령이 전체 여성에게 주어진 제재, 특히 여성성직 금지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저자의 의도나 문맥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다. 바울의 말의 초점은 전혀 거기에 맞추

어져 있지 않고, 단지 지금 고린도교회의 평안과 품위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을 통제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다.¹⁷ 바울은 당시 고린도교회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특정한 사실을 두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근거를 대고 보편적인 금지를 하는 투로 말을 하지만, 그 금지의 대상과 내용은 제한적인데 교회에서 기혼 여성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다.

오히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말씀에 복종하라는 율법은 당시 고린도교회 상황에서 여자는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는 특정한 명령의 근거가 된다. 또한 당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관습은 여자가 교회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부끄러움을 끼친다는 특정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율법은 남녀의 구별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 구별을 확인하거나 강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의 가르침은 소위 성차별을 철폐하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바울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을 그 근거로 제시할 뿐이지, 보편적인 규범 그 자체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울은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성을 제외시켜버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여성의 성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많다.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지 않다. 바울은 보편적인 원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기인한

17) D. Prior, 고린도전서 강해, pp.339-340.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의 관심은 교회와 예배에서 혼돈과 방해와 불화 대신에 질서와 평화와 상호 유익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¹⁸ 그래서 이 본문을 교회의 여성 전체에 적용시켜서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여성들의 사역을 외면하고 말 것이다.

18) T. Wright, 모든 사람을 위한 고린도전서, p. 257.

참고문헌

권연경.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 IVP. 2022.

김지철.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 대한기독교서회. 199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 『고린도전서』.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목회와신학 편집부. 『고린도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아카데미. 2007.

송영목. “여성 목사 안수에 관하여”. 『개혁정론』. 2017년 7월. reformedjr.com

스티브 장. “음란과 소송에 관한 바울의 권고”. 『고린도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HOW주석. 두란노아카데미. 2007. 117-128.

조병수. 『고린도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 2015.

최갑중. “고전14장34-35절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고린도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HOW주석. 두란노아카데미. 2007. 51-67.

Blomberg, C. L.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NIV적용주석시리즈. 채천석 옮김. 솔로몬. 2012.

Fee, G.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Revised Editio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T. Eerdmans. 2014.

Fitzmyer, J. A. *First Corinthians*. The Anchor Yale Bible. Yale. 2008.

Garland, D. E. *1 Corinth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T. Baker Academic. 2003.

Hays, R. B.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Interpretation 시리즈. 유승원 옮김. 한

국장로교출판사. 2006.

MacArthur, J. 『고린도전서』.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1 Corinthians*. 전의우 옮김. 아바서원. 2022.

Osborne, G.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LAB주석시리즈. 김일우 옮김.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2.

Prior, D. 『고린도전서 강해』. *The Message of 1 Corinthians*. BST시리즈. 정옥배 옮김. IVP.

Taylor, M. *1 Corinthi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B&H Publishing Group. 2014.

Thiselton, A. C.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권연경 옮김. SFC. 2011.

Witherington III, B. *Conflict & Community in Corinth: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1 and 2 Corinthians*. Eerdmans. 1995.

Wright, T. 『모든 사람을 위한 고린도전서』. *Paul for Everyone: 1Corinthians*. 이철민 옮김. IVP. 2013.